신당 후보 확정 이후 대선 레이스

경선갈등 치유·단일화 '산넘어 산'

단일화 성사 여부, 후보 지지율이 최대 변수

주가 급상승 문국현, 鄭 최대 경쟁자 될 듯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를 각기 대선 주자로 확정하고 장외 유력주자인 문국현 전 사장도 독자 정당인 '창조한국당'의 깃발을 올림에 따라 범여권은 대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그러나 범여권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1대 1 대결 구도를 형성하기까지는 내부 전열 정비에서 시작, 후보단일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내부 전열 정비= 범여권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했지만 경선 과정에서의 불거진 내부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합 민주신당의 손학규, 이해찬 후보는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골은 상당하다.

이에 따라 정 후보 측은 선대위 구성시 상대후보 진영의 인사들을 폭넓게 끌어안지 않는다면 친노 진영의 이탈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상황. 경선을 중도 포기한 조순형 의원과 신국환, 장상 후보 등이 지난 12일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경선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15일 기각됐지만 내홍은 계속중이다.

◇문국현 후보 변수=장외 대선 주자였던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창조한국당을 창당하며 전열을 정비하면서 대선 구도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문 후보는 범여권 후보군에 실망한 민주·개혁진영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지지율 상승만 이뤄진다면 후보단일화 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후보 측은 15일 범여권 후보단일화와 관련, 원칙 없는 단일화 논의에 반대한다며 정동영 후보에게 불법 경선에 대한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단일화 시기도 창조한국당 창당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범여권 후보단일화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노 그룹과 반 정동영 그룹이 문 후보와의 연대에 나서면서 범여권의 대선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후보단일화 진통=범여권 각 정파가 후보단일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당 간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후보단일화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의 여론 지지율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후보 간의 지지율 우열이 확고한 차이를 보일 경우, 후보단일화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 쪽으로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대 지지율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쪽으로 단일화 바람이 불 것이라는 측면에서 20%대 지지도 선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후보 간의 지지율이 엇비슷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의 기득권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균열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후보단일화에 미온적인 정당은 차기 총선에서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결국 후보단일화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선 정국 변수=우선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내달 열리게 되는 남북 총리·국방장관 회담의 결과 등도 대선 구도와 관련해 눈여겨볼 사안들이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숨겨진 의혹이 밝혀진다면 대선 구도는 상당한 접전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유의 '훈수정치'에 나설 경우 판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정동영 후보가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후보 지명대회에서 손학규, 이해찬 후보와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이해찬 거취는

孫, 후보단일화 역할 정치활로 모색

李, 세력 블록화 통해 당권 노릴 듯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손학규, 이해찬 후보의 거취에 당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후보는 경선 승리를 거머쥐었으나 아직 범여권 단일후보가 아닌데다 동원선거 논란 등으로 내상을 입은 탓에 두 사람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손, 이 후보는 일단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대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 후보가 이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포용할지도 또 다른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손 후보는 우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향후 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는 15일 정동영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을 깨끗이 받아들인다"며 "대선 승리를 정동영 후보가 반드시 이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후보가 일단 경선 승복을 밝힌데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정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 후보 측 관계자도 "당장은 휴식을 취하면서 정국을 지켜볼 것"이라며 "그러나 일정 시점이 되면 민주·개혁진영의 결집에 나서 대선 승리에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내에 남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역할을 통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이해찬 후보 등 친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타 후보를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학규 캠프의 현역의원들이 문국현 후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친노 후보 단일화에도 이해찬 후보의 무기력한 경선 패배는 '친노의 굴욕'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누차 '깨끗한 승복'을 강조한 바 있어 독자적인 길을 갈 명분은 많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탈당 등 독자적인 길을 가기보다는 수면 아래서 당내 정치세력 블록화를 통해 대선 이후 당권 등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노 진영은 정동영 후보와 치유되기 힘든 감정적 공방전을 펼쳤기에 과연 정동영 후보에 백기투항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잘 해나가기 바랄뿐" 반응 자제

DJ "후보 단일화 국민여론 살펴야"

청와대는 15일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선출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 잘 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누굴 지지하느냐, 어떤 원칙에서 지지하느냐를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선거법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경선 결과에 대해 특별한 대외적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식적 반응을 자제하는 청와대의 표면적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신당 대선후보로 정 전 의장이 선출된 데 대해 복잡미묘한 감정선이 흐르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일 신당 경선 결과와 관련, 경선이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대해선 "국민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께서는 후보 선출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며 "후보 지명자 자신은 물론 경합자, 당원, 국민의 협력이 컸고 지명자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정동영 수락 연설

"하나 되면 12월의 승리는 우리 것"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는 15일 "이제는 치유와 통합으로 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하나가 될 때만 승리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당내 화합에 본격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창당후 지난 두달, 우리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생겼고 분열도 생겼다.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 12월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이 순간 저는 벅찬 감동과 함께 바위 덩어리같은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준 희망의 횃불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승리의 불씨가 들불처럼 번지게 하겠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 새로운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내자"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한나라당식 정글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돈있고 땅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약육강식 경제, 이명박식 경제를 거부하며, 대운하를 파서 환경재앙을 만들어내는 토목경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비판한 뒤 "국민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대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를 선언한다"며 "차별없는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강국, 항공우주산업 강국을 만들어내고, 일자리 불안, 노후불안, 사교육 불안, 주거불안 등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잘 듣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집무실에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해 비정규직.청년실업.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챙기는 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당한 외교, 능력있는 외교, 품격있는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을 외교국으로 만들겠다"며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시대를 주도해야 한다. 제가 중심에서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